

# 광주다운 경기 했지만... 홈 전용구장 첫 승 힘드네

### 광주 2025명 입장 뜨거운 응원 광주FC, 전북현대에 0-2 패 전남, 서울이랜드와 1-1 무승부

광주FC의 전용구장 첫 승이 4월로 미뤄졌다. 광주는 지난 13일 오후 2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전북현대와 K리그1 2021 4라운드 홈경기를 치렀다.

경기가 끝난 뒤 직장 김상식 감독은 "광주 선수들이 열심히 한 탓에 고전했다. 광주가 수비적으로 잘 했고, 우리가 미드필더 간격을 좁히면서 찬스를 못 만들었다"고 어려웠던 경기였다고 이야기했다.

광주 김호영 감독은 "준비한 대로 경기는 잘 이뤄졌다. 경기력 자체는 좋았다. 광주는 광주다운 경기를 했고, 전북은 전북다운 경기를 하지 못했다"며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사령탑들의 반응과 달리 결과는 광주의 0-2패였다.

광주는 엄원상의 스피드를 앞세워 전반전 내내 전북을 압박하며 슈팅 세례를 퍼부었다. '킥턴' 김

원식은 상대의 길목을 차단하면서 몇 차례 역습 기회를 만들어냈다.

투지의 수비에 막힌 전북 이승기는 전반 종료 직전에서야 존재를 알리는 슈팅을 선보이기도 했다.

후반 시작 후에도 엄원상이 위력적인 헤더로 분위기를 주도했고, 후반 10분에는 펠리페가 투입돼 움직였지만 골대를 살짝 살짝 벗어난 슈팅이 이어지면서 광주의 애가 됐다.

그리고 전북은 '디펜딩 챔피언'답게 광주의 압박을 버틴 뒤 후반 28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전세를 뒤집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김보경이 띄운 공이 문전에 있던 홍정호의 머리에 맞고, 왼쪽에 있던 일류첸코 앞으로 향했다. 그리고 일류첸코는 왼발로 광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선제골을 내준 광주는 후반 30분 교체카드로 분위기가 전환이 나셨다.

김호영 감독은 송승민, 이민기, 이찬동을 대신해 엄지성, 여봉훈, 이은뜸을 투입하면서 전력을 재정비했고 몇 차례 위협적인 공격을 전개했지만, 끝내 골대를 뚫지 못했다.

체력이 떨어진 후반 44분 한희훈의 자책골이 기록되면서 광주는 0-2 패를 기록했다.

울산현대에 이어 또 다른 '우승후보'를 연달아 안방에서 만난 광주는 이번에도 광주전용구장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다.

지난해 3무 4패로 새 안방에서 승전보를 울리지 못했던 광주는 올 시즌 두 차례 도전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경기 내내 울산·현대에 밀리지 않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더 컸다.

패배에도 팬들의 응원은 뜨겁다.

울산과의 홈 개막전에 1953명의 관중이 찾았고, 13일 전북전에는 2025명이 들어차 코로나19로 제한된 최대 관중수를 모두 채웠다.

상대를 긴장시키고 있는 광주는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FC서울 그리고 20일 오후 2시 제주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를 치른다. 강행군 뒤 4월 4일 오후 4시 30분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역사적인 전용구장 첫 승을 노릴 예정이다.

한편 전남 드래곤즈는 선제골을 지키지 못했지만 세 경기 연속 무패에는 성공했다.

14일 서울이랜드의 안방으로 가 K리그2 3라운드 경기를 치른 전남은 전반 4분 만에 고태원의 헤더로 선제골을 기록했다. 일찍 골이 나오면서 앞선



광주FC의 송승민(왼쪽)이 지난 13일 광주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 K리그1 2021 4라운드 경기에서 공중볼을 다루고 있다. <광주FC 제공>

경남전 1-0 승리 이후 연승에 불이 붙는 것 같았지만 후반 10분 역습 상황에서 서울이랜드 레안드로에게 골을 허용했다. 이후 그대로 경기가 1-1 무승부로 끝나면서 전남은 개막 후 1승 2무를 기록하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국가대표 3명 배출

### 강경민·원선필·김지현 발탁 올림픽 대비 강화 훈련 참가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에서 국가대표 3명을 배출했다.

14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 강경민·원선필·김지현이 국가대표로 뽑혀 2020 도쿄 올림픽 대비 강화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다.

광주도시공사에서 국가대표 3명을 배출한 것은 창단 이래 처음이다. 이들은 올시즌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광주도시공사를 정규리그 4위, 리그 통합 3위로 끌어올린 주역이다.

강경민은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정규리그 득점 1위(206득점), 공격포인트 1위(275개), 리그 MVP 2회 수상을 기록했다. 원선필과 김지현은 각각 피벗과 레프트백 부문 Best 7에 선정됐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이번 국가대표팀 훈련에 총 22명의 선수를 선발했다. 이 가운데 최종 14명이 엔트리로 뽑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다.

국가대표 강화 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김지현은 "아직 많이 부족한데 국가대표에 뽑혀서 놀



강경민 원선필 김지현

랐다. 선배들과 손발을 맞춰 올림픽에 출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 여자 대표팀은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북한, 카자흐스탄, 태국, 홍콩, 중국을 상대로 5전 전승을 거둬 올림픽 핸드볼 사상 남녀를 통틀어 최초로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확정 한 바 있다. 여자대표팀 감독은 올시즌 부산시실공단을 이끌고 여자부 통합 우승을 이뤄 낸 강재원 감독(57)이 맡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혼신의 연기 14일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 마지막 날 프리스케이팅에서 수리고 위서영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펜싱 사브르 세계 1위 오상욱 월드컵서 우승

### 여자 윤지수는 동메달

펜싱 남자 사브르 세계랭킹 1위 오상욱(25·성남시청·사진)이 1년 만에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오상욱은 1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사브르 월드컵 남자 개인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3월 룩셈부르크 월드컵 개인전 동메달 이후 1년 만의 국제대회 입상이다.

그 대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대회가 중단되고 도쿄올림픽도 연기되면서 국내에서 훈련과 대회 출전으로 기량을 갈고닦았던 오상욱은 모처럼 열린 국제대회에서 최정상의 자리를 재확인했다.

그의 국제대회 개인전 우승은 2019년 7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오상욱은 세계랭킹 포인트 269점을 쌓아 알라이 더쉬워츠(미국·197점)를 멀찍이 따돌리고 남자 사브르 개인 랭킹 1위를 질주했다.

이번 대회에서 오상욱은 8강에서 카밀 이브라기모프(러시아)를 15-5로, 준결승에서 마티아스 스자보(독일)를 15-10로 연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2012 런던·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인 아르 실라지(헝가리)와의 결승전에선 접전 끝에 15-14로 승리하며 시상대 맨 위에 섰다.

김계환(서울교통공사)이 15위, 구본길은 18위(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자리했다.

같은 곳에서 열린 여자 사브르 월드컵에서는 윤지수(28·서울시청)가 동메달을 획득해 도쿄 올림픽의 해 첫 국제대회에서 남녀부 모두 메달이 나왔다.



윤지수는 2015년 10월 프랑스 오를레앙 대회 동메달 이후 개인 두 번째 월드컵 메달을 따냈다. 그는 8강전에서 사라 발레(프랑스)를 15-14로 따돌려 동메달을 확보했고, 준결승에서 세실리아 베르데(프랑스)에게 9-15로 져 결승엔 오르지 못했다. 김지연(서울특별시청)은 10위, 서지연(안산시청)은 19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여자농구 챔피언결정전 '끝까지 간다'

### KB 2연승 반격... 오늘 최종 5차전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에서 1·2차전을 연이어 내주고 벼랑 끝에 몰렸던 청주 KB가 이후 2연승으로 대반격하며 승부를 최종 5차전까지 끌고 갔다.

KB는 13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KB국민은행 Liiv M 2020-2021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5전 3승제) 4차전 홈 경기에서 용인 삼성생명을 연장 접전 끝에 85-82로 꺾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2위에 오른 뒤 플레이오프에서 인천 신한은행을 2승으로 제압하고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한 KB는 용인에서 열린 1·2차전 연패를 당했으나 11일 3차전을 잡고 회생한 데 이어 4차전까지 승리하며 2승 2패로 균형을 맞췄다.

반면 삼성생명은 정규리그를 4위로 마친 뒤 플레이오프에서 1위 팀 아산 우리은행을 따돌리고, 챔피언결정에서도 초반 2연승을 거두며 포스트시즌 내내 돌풍을 일으켰으나 다잡은 트로피를 내줄 위기에 몰렸다.

두 팀의 운명이 갈릴 최종 5차전은 15일 오후 7시부터 용인체육관에서 열린다.

KB는 2018-2019시즌 이후 통산 두 번째 챔피언결정 우승을 노리고, 삼성생명은 2006년 여름리그 이후 15년 만이자 통산 6번째 챔피언결정 정상에 도전한다.

KB가 승리하면 여자프로농구 사상 최초로 챔피언 2패 뒤 3연승으로 역전 우승을 달성하며, 삼성생명이 이기면 정규리그 4위 팀 최초의 챔피언결정 우승 기록을 남긴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나리
2관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3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4관	웨이 다운, 미션 파서블
5관	미션 파서블
6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9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리스타트, 임모나이트
7관	세네카를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소울, 허트 로커
8관	세네카를 리스타트, 브레드, 통과 제리 유어 아이즈 텔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극작 상상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커스  
**아카펠라 그룹 EXIT (One Voice)**  
일시 : 2021. 04. 11.(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